

아름다운 차이를 흐리게 하기

무엇보다 미국에서, 그리고 영어권 전반에서도, 여성이 이끌고 가르쳐도 되는가에 관한 논쟁이 다시 한창입니다. 마치 10년마다 한 번씩 기독교 세계를, 특히 보수적인 복음주의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성경적 근거로 가르침과 지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상호보완주의자들(파이퍼(Piper), 그루뎀(Grudem), 켈러(Keller), 카슨(Carson), 맥아더(McArthur), 버크(Burk), 드영(De Young), 데버(Dever), 마티아스 로만(Matthias Lohmann), 그리고 독일에서는 적지 않은 자유교회들과 E21, EBTC, KFG 같은 단체와 출판사, 온갖 형태의 형제단 교회들, 3L Verlag 등)의 논증은 모두 이미 검토되고 반박되었습니다. 이 글은 여성의 역할이 위계적으로 종속된다는 이 주장을 새롭게 뒷받침하려는 한 글을 다룹니다. 그것은 조금 더 새로운 접근이지만, 이언 폴(Ian Paul)과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의 이 비평이 보여 주듯이 똑같이 빛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DeepL.com의 도움을 받은 작업용 번역이며, 인쇄용으로 다듬은 번역이 아닙니다. 논증과 반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뜻이 통하게 옮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생각을 발견했고, 그것은 제가 이 입장을 완전히 버린 것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더해 주었습니다.

Hans-Jörg Ronsdorf, 2022년 6월 28일, 아우크스부르크

저는 **Men and Women in Christ: Fresh Light from the Biblical Texts** (IVP, 2019)의 저자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 QC와 함께, 뉴프런티어스(Newfrontiers)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앤드루 윌슨(Andrew Wilson)이 쓴 **"Beautiful Difference: The Complementarity of Male and Female"**에 대한 성경적 비평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비평의 저자들과 지지자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글 끝에 있습니다.

윌슨의 상호보완주의의 변호

상호보완주의¹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91년에 존 파이퍼(John Piper)와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이 편집한 상호보완주의의 중요한 저작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Recovering From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가 나왔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 에이미 버드(Aimee Byrd)는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한 개혁주의 교단 안에서 글을 쓰는 신학자입니다.

버드의 책은 복미의 대표적인 상호보완주의자인 데니 버크(Denny Burk)가 서평을 썼습니다. 그는 "상호보완주의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세대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출구를 찾는 한 세대가 있고, 버드는 그 출구를 제공한다." 그녀의 독자들은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할 만한 그럴듯하게 지적인 구실만 찾고 있다."²

테런 윌리엄스(Terran Williams)는 상호보완주의와 연결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큰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는 교회의 입장을 더 잘 변호하는 글을 마련해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철저히 검토하면서, 그는 그것을 성경으로 변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³

실제로 많은 사람이 상호보완주의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참된 동역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앤드루 월슨**은 손실을 막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런던 남동부에 있는, 뉴프런티어스 교회 가족에 속한 한 교회의 가르치는 목사이자 장로입니다. 우리는 그를 마음씨 좋고 선의를 가진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존중합니다. 그는 지적이고 사려 깊은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만합니다.⁴ **그는 아마 유럽에서 상호보완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일 것입니다.**

월슨은 이 접근 방식의 몇 가지 측면을 옳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 접근 방식이 우리 자매들을 비하했고, 전후 미국을 신약 성경 안으로 읽어 들였으며, 삼위일체에 관한 비정통적 견해를 변호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신학적 자유주의자로 부당하게 몰아세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노선을 유지하려 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오직 남성만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신앙을 길어 올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상호보완주의를 지지하는 표준적인 논증에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상호보완주의를 “상호 보완성”이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넓은 성경적 기초 위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글 “Beautiful Difference: The Complementarity of Male and Female”(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성)에서 그렇게 했습니다.⁵ 그는 가정 안의 남성 지도도 다루지만, 그의 논증은 주로 교회 안에서 오직 남성만의 지도(남성 장로)를 변호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동의하는 중요한 진리들도 담겨 있습니다.⁶ **그러나 이 글이 교회 지도를 남성에게 한정해야 한다는 타당한 성경적 논증을 정말로 제시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와 달리, 월슨의 가르침은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아름다운 차이를 손상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상호 보완성(서로 보완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남자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여자를 제한합니다. 이 견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 주십시오.⁷

월슨의 논증

먼저 월슨의 논증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는 흔히 쓰이는 증거 본문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그 대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의 핵심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보완성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창조 안에 새겨져 있다.
2.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들 각각의 특성은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다. 거기서 남자(히브리어에서 “땅”을 뜻하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동산을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임무를 받았고, 여자 하와(“생명”을 뜻하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3.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성은 결혼과 가정과 일터에서 드러난다. 디모데전서 5:1-2에 따르면 우리는 나이 든 여자를 특별히 어머니처럼, 나이 든 남자를 특별히 아버지처럼, 젊은 여자를 자매처럼 대해야 하며, 성별이 없는 단위나 성이 없는 원자화된 노동자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4. 핵심은 오직 남자만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a) 장로의 임무가 양떼의 목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고, (b) 성경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이다.

(a)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사도행전 14:22-23; 20:17-38; 디도서 1:5-9; 베드로전서 5:1-4를 가리킨다. (b)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예와 하나의 가르침 본문으로 이루어진 일곱 가지 주제를 가리킨다. 예는 아담, 족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스라엘 왕정, 열두 사도, 그리고 성경의 끝을 장식하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들이다. 가르침은 교회 장로의 자격에 관한 바울의 목록이다.

5. 여자들은 성경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여자로서 남자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섬긴다. 여자로서 그들은 남자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온갖 일을 할 수 있다.
6. 교회는 하나의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자가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여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남자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을 하려는 월슨의 시도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의 논증은 분명히 결함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관해서는 틀렸고, 성경 신학과 모순되며, 성경 주해에서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이 점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역사

월슨에 따르면 성경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은 남자들입니다. 그 말로 그는 여자가 아니라 오직 남자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려진 반례들이 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 말고 누가 백성을 광야를 지나 안전하게 이끌도록 하나님께 지명받았습니까? 모세의 형과 누이, 곧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20-21; 민수기 12:1-2; 미가 6:4를 보십시오.
-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워, 분쟁을 판결하고 예언하며 전투에서 백성을 지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구원하게 하십니다(사사기 2:16-19; 4-5장).
- 요시아 왕 때 하나님은 홀다를 여선지자로 부르셔서 왕과 백성을 이끌고 부흥을 일으키게 하십니다(열왕기하 22:11-23:3).⁸
- 신약 성경에서 브리스길라는 막 생겨나던 에베소 교회를 불충분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합니다(사도행전 18:18-28).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그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⁹ 그녀는 바울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목까지 내놓았습니다(로마서 16:4).¹⁰

- 바울과 함께 갇혔던 유니아는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로마서 16:7). 그녀의 사도직은 순회 전도자이자 교회 개척자였던 아볼로와 바나바의 사도직과 같은 종류였습니다.¹¹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월슨이 고른 예들 가운데 일부조차, 오직 남자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합니다.

첫째, 아담. 월슨은 아담이 동산에 놓인 것은 “섬기고 지키기 위해서”(창세기 2:15)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소수 해석이기는 하지만, “섬기고 지키다”라는 그의 번역이 옳다고 가정하겠습니다.¹² 그렇더라도:

1. 창세기 2장은 동산을 지키는 일이 아담 혼자만의 임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이 임무에서 그의 돕는 배필, 곧 “그에게 맞는 짝”이 되어야 했습니다(창세기 2:18; 1:28 참조).
2. 성경의 용례에서 여자에게 적용된 “돕는 자”라는 단어(‘ēzer)는 “보호자” 또는 “구원자”라는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다른 모든 경우에, 문맥은 돕는 행위가 보호나 구원임을 보여 주며, 흔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¹³
3. 동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¹⁴

둘째, 족장들. 월슨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장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주신 성경 구절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들 가운데 몇몇이 실제로 때때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근거하려는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 여자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 그 집안의 남자들을 폭력적인 죽음에서 지킵니다(사무엘상 25장).

라합은 남자 정탐꾼들을 보호합니다(여호수아 2장).

이름 없는 한 여인은 데베스 사람들이 불타 죽지 않도록 지킵니다(사사기 9:50-57). 그녀는 특히 흥미로운 예입니다. 그녀는 악을 물리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56절), 방어를 위한 전투 행위로(포위하고 있던 아비멜렉 왕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힘을 쓰는 일(맷돌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비멜렉에게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여자를 보호하거나 이끄는 자리에 세우시는 일이 그 문화의 가부장적 사회 규범을 어떻게 거스르는지 보여 줍니다.

아벨벳마아가의 지혜로운 여인은 쳐들어온 군대로부터 자기 성읍의 남자와 여자들을 보호합니다(사무엘하 20장).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학살에서 구합니다(에스더 2:19-9:19).

잠언 31:10-31의 강한 여인은 자기 가족과 집안뿐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그녀는 이상으로 묘사되지만, 이는 묘사된 특성들이 한 사람에게 모두 있지는 않더라도 실제 여성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¹⁵

셋째, 새 예루살렘. 월슨은 이렇게 씁니다.

성경은 여성인 한 도시(우리의 성별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 도시에 속한다)가 남성인 구속자에게 구원을 받고 마침내 그와 혼인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도시의 성벽과 기초에는 남성 사도들과 남성 족장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

월슨이 왜 새 예루살렘을 자기 주장의 증거로 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환상은 족장들이나 남성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요한계시록 21:12에서 (성벽이 아니라) 문들에는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문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이름들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에스겔 48:30-35; 요한계시록 7:4, 9 참조). 문들은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들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21:25).
- 요한계시록 21:14에서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사도”라는 표현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요한계시록 1:5) 예수에 관한 사도적 메시지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보호가 문제가 아닙니다.¹⁶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남자들과 함께 다스리라고(창세기 1:28), 그리고 보아하니 남자들과 함께 보호하라고(창세기 2:18)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불순종이 낳은 부정적인 결과(“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 3:16) 이후에도,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보호하는 행동의 증거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발견합니다. 미리암에서부터 잠언 31장의 강한 여인에 이르기까지, 위의 예들을 보십시오.

성경 신학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서로 대립하는 두 시대에 관한 신약 성경의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 내신 지금의 악한 시대가 있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오는 시대는 장차 있을 부활과 새 창조에서 만물이 회복될 때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두 시대가 겹치는 때, 곧 “이미, 그러나 아직”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흐름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¹⁷

오는 시대의 완성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산이 아니라 도시로 상징되는 새롭고 다른 미래입니다(요한계시록 21:1-22:5). 그래서 부활 때에는 창세기 2:24와 달리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마태복음 22:30).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새 창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채워질 것입니다(요한계시록 7:9; 19:6-7).

물론 월슨(Wilson)도 이 모든 것을 압니다. 그는 글 첫머리에서 새 창조에 관해 이렇게 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논증을 더 전개해 나가면서 그는 이 성경적 틀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첫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논증합니다.** 그는 옳게도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성을 표현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부름이 지금 이 삶 속에서 오는 시대의 새 생명을 표현하라는 명시적인 부름에 의해 어떻게 한정되는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맥락에 충실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의 실패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관한 그의 언급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성소를,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는 일을 맡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모두 남자, 그것도 폭력의 남자들이다. 그들은 짐승을 죽이며 하루를 보내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만큼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사장 직무에 임명된다(출 32:25-29).

이것이 교회의 남성 장로를 지지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언약의 삶과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구속자는 우리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뺨도 돌려 대고, 맞받아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¹⁸ 신약 성경에서 신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쓰라는 부름을 받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¹⁹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것이지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고린도후서 10:3-5). 바울의 “제사장 직분”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로마서 15:16).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 영적 싸움을 위해 영적 무기로 무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에베소서 6:10-18).²⁰

성경 신학의 맥락에서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직의 의미는 율슨의 결론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직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 준 것이며, 그 사역 안에서 모든 신자가 남자든 여자든 제사장이 됩니다(히브리서 2-10장; 베드로전서 2:9; 요한계시록 1:6; 5:10). 레위 지파 제사장직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보호하는 일에 관한 교훈으로 본다면, 그 교훈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이 임무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²¹

첫 창조에 근거한 율슨의 논증은 여기서 그냥 무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남자가 여자와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남자는 대체로 여자보다 근력이 더 셉니다.²² **그러나 근력 같은 신체적 특성은 교회를 이끄는 자격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는 데에는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을 복돋우고 기르고 보호하기 위한 영적인 성품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창세기 1:27(“남자와 여자”)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갈라디아서 3:28(“남자나 여자가 없다”)에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바로 이 사고의 틀(옛 언약/새 언약, 지금 시대/오는 시대, 첫 창조/새 창조)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불순종으로 손상된 첫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창조 사이의 대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갈라디아서 1:4; 6:15). 그리스도 안의 새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 (육체적으로는 그 구별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의 새 가족 안에서의 행동에 결과를 가져왔듯이(갈라디아서 2:11-21; 6:15-16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진 것도 (육체적으로는 그 구별이 계속 있었지만) 행동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들이 복음의 온전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의 사역에서 예고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것과 다시는 죽지 않으실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통해 결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성령의 선물을 통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오는 시대에 관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합니다(사도행전 2:17-18, NIV).

[행 2:18]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새 생명 안에서는 옛 사회적 차이들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요한복음 6:45, 이사야 54:13을 인용; 예레미야 31:31-34도 보십시오).

영적 은사는 – 이끄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도 –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동튼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성별의 구별 없이 주어집니다.

- 사도행전 2장에서 여자들은 예언하게 되어 있고(17-18절),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무리에 실제로 여자들이 속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언은 지도의 한 형태입니다.
- 로마서 12:3-8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에는 예언, 가르침, 다스림이 포함됩니다.
-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 사람”(7절)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8절), 사도, 선지자, 교사(28절)가 포함됩니다.²³ 여기서 매우 눈에 띄는 것은, 성령께서 성별 사이의 어떤 구별도 암시하지 않으신 채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 에베소서 4:11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사이에 성별에 따른 구별을 암시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1장의 여성 선지자들, 사도행전 18장의 가르치는 브리스길라,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도 주목하십시오).
- 골로새서 3:16에서 권면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 베드로전서 4:10-11에서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으면, 이 가르침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직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으로 대체되었다는 교훈을 확증해 줍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교회 지도는 남자에게만 허락된다고 생각했다면, 왜 그들은 이끄는 은사에 관한 가르침을, 그런 제한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했을까요? 영적 은사에 관한 가르침은 새 언약 아래에서 교회 지도와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자기 새 운동의 창립 사도로 택하셨다는 사실도 이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자유인이었고,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과도기에, 새 언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열두 족장을 본떠,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시대에, 그 뒤를 이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이나 노예일 수 있었다는 데에는 논란이 없습니다. 열두 사도가 유대인이고 자유인이었다는 것은 그런 지도자들에 반대하는 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두 사도가 남자였다는 것도 후대의 지도자들이 여자일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하는 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주해

이제 장로의 임무가 양 떼의 목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월슨의 주장과, 교회 장로의 자격에 관한 바울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슨은 이 두 가지가 장로직을 남자에게만 맡기도록 규정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장로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양 떼의 목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목자”라는 은유도, 그 임무의 성격도 장로가 남자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이기도 합니다(창세기 29:9; 출애굽기 2:16-17). 그러므로 이 은유는 성별에 따른 요구 조건을 함축하지 않습니다.

임무의 성격에 관해서는, 우리도 육체적인 싸움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적합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실제 늑대가 실제 양 떼를 공격한다면, 여자 목자보다 남자 목자가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장로의 임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장로의 임무에는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가진 영적인 성품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 장로의 자격을 살펴보면 매우 분명해집니다.²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거짓을 가르치는(1:3) 자격 없는 특정한 지도자들(1:7)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는데, 그는 그들의 성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1:3, 헬라어 *tisin, tis*에서 온 말로 “어떤 사람, 누군가”). 디모데전서 2:15에서 여자들을 언급한 바로 다음에 바울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넘어가며, 성별 중립적인 도입부로 시작합니다. “누가(*tis*)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3:1).

겉보기에 하나뿐인 예외를 제외하면, 바울이 이어서 열거하는 모든 행동과 기준은 여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바울은 여자들도 장로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다른 곳에서 여자들에 관해 쓸 때 같거나 비슷한 헬라어 단어와 생각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장로직은 선한 일입니다(3:1). 바울은 여자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합니다(5:10).
-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3:2). 바울은 여자들이 책망 받을 것이 없기를 기대합니다(5:7).

- 장로는 절제해야 합니다(3:2). 바울은 여자들이 절제하기를 기대합니다(3:11).
- 장로는 신중해야 합니다(3:2). 바울은 여자들에게 신중함을 기대합니다(2:9, 15).
- 장로는 단정해야 합니다(3:2). 바울은 여자들에게 단정함을 기대합니다(2:9).
- 장로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3:2). 바울은 여자들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기대합니다(5:10).
-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3:2). 바울은 여자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디도서 2:3).
- 장로는 술을 즐기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3:3). 바울은 여자들이 술의 종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디도서 2:3).
- 장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3:3). 바울은 여자들이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2:9).
-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3:4). 바울은 여자들이 집을 다스리기를 기대합니다(강한 용어인 despoteō가 들어 있는 합성어를 사용합니다)(5:14).
- 장로는 위엄을 가지고 자녀를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3:4). 바울은 여자들이 위엄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3:11).
- 장로는 교만하여져서 정죄에 빠지는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3:6). 바울은 여자들이 겸손하고 정죄를 받지 않기를 기대합니다(5:10, 12).
- 장로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3:7). 바울은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기를 기대합니다(5:7, 10).

바울은 그 밖에도 여러 특성을 꼽습니다. 관용하고, 구타하지 않고(1:13 참조!),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3:3). 이 특성들이 여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데에는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나 행동을 적어도 열여섯 가지 열거한 셈입니다. 그는 여자들이 이 자격을 갖추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관해 그가 하는 다른 말들, 곧 여성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말들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한 사역을, 아이처럼 온유하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았다고 묘사합니다(데살로니가전서 2:7).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사역에서 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은유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여인처럼 봅니다(갈라디아서 4:19).

이 모든 것은, 장로의 자격이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보호의 임무를 전제하고 오직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윌슨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문들은 이것이 바울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한결같이 보여 줍니다.

자격 목록에서 겉보기에 하나뿐인 예외는, 장로가 *mias gunaikos andra*, 문자적으로 “한 여자의 남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3:2). 이 관용구는 그리스도인의 성 윤리 기준, 곧 문란하지 않고 일부다처가 아닌 것에 부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맥과 헬라어의 작동 방식 때문에, 이 관용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곧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헬라어 저자가**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리키고자 할 때 남자를 가리키는 해당 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²⁵

장로 자격에 관한 바울의 성별 중립적인 표현은, 바울의 헬라어에는 나오지 않는 수많은 남성 대명사와 형용사를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디모데전서 3장의 영어 번역본들에 익숙한 독자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글러스 무(Douglas Moo)와 톰 슈라이너(Tom Schreiner) 같은 저명하고 뛰어난 상호보완주의 학자들도 이 자격 목록의 문구가 여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²⁶ 존 파이프(John Piper)와 웨인 그루덤(Wayne Grudem)조차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²⁷

우리는 바울의 목록을 흔히 “자격”이라고 부르지만, 거의 모든 학자와 교회 권위자들은 이것을 규정이라기보다 지침으로 옳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장로직의 자격을 법적으로 정의한 교회 규정이 아니라, 가까운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 속의 조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장로에게 결혼했을 것(2절의 문자적 읽기)이나 적어도 자녀가 둘 있을 것(4절)을 요구하는 큰 교회 단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규정으로 의도된 것이라면, 바울 자신은 물론 목자장이신 주 예수조차 교회 장로가 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록을 장로직이 남자에게 한정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윌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는 일곱 가지 요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장로들이 “남자라고 전제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많은 장로가 남자일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뜻이라면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장로는 오직 남자일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뜻이라면, 우리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목록에는 그런 전제가 없습니다. *mias gunaikos andra*를 오직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말로 읽을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슨의 첫째 요점이 옳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의 입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 대한 전제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장로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mias gunaikos andra*라는 관용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윌슨은 왜 이 문맥에서 이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윌슨의 입장은 다음 사실들과 충돌합니다. 바울은 (1) 자기 목록을 성별 중립적으로 시작하고, (2) 열일곱 가지 특성이나 행동을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열여섯 가지는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분명히 여자들에게서도 발견되며, (3) 열일곱째 것을 (헬라어의 구조상) 성별 중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면서도, (4) 그 열일곱째 것을 장로는 남자여야 한다는 규정적 요구로 이해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목록이 규정이라기보다 지침이라는 이해와도 모순됩니다. 윌슨의 견해는, 존 스토틀(John Stott)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셋째,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가지고 있고 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족이며(예: 5:1-2), 이것은 바울이 감독을 아버지로 본다는 강력한 표지이다.

그러나 이 논증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필요로 하는 가족이라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넷째, 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복종하게 하라는 요구(3:4)가 바울이 장로를 남자로 본다는 “강력한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집안을 다스리고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²⁸ 윌슨의 확신의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그는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요구(3:2)를 들어 논증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이것을 여자들에게 금했다(2:12. 그가 정확히 무엇을 뜻했는지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명백한 연관성을 보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수많은 논쟁은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상호보완주의자가 아닌 학자들은 2:12를 특정한 여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의 번역과 해석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1:3부터), 왜 2:12를 여자가 거짓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말로 읽습니까?

바울이 일반적인 규칙을 세우려 했다면, 왜 그는 *ouk epitrepō*, 곧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 표현이 일반적인 규칙을 세우는 데 사용된 예는 없습니다.

바울이 2:12에서 교회 안의 정당한 목회적 권위의 행사를 다루고 있다면, 왜 그는 권위 행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들 가운데 하나 대신 *authentēō*라는 동사를 사용합니까?

상호보완주의자들은 *authentēō*를 “권위를 가지다” 또는 “권위를 행사하다”로 번역하지만, 바울 이전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그 후 약 300년이 지나기까지도 이 의미로 쓰인 분명한 예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²⁹

그러나 가르침에 관한 윌슨의 논증은 상호보완주의적으로 읽더라도 빛나갑니다. 바울이 5:17에서 모든 장로가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³⁰

여섯째, 그는 3:8에서 시작하여 3:12로 이어지는 집사의 자격 한가운데에서 여자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3:11을 가리킵니다. 3:11 때문에 윌슨은 바울이 여자를 장로로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입니다. 주석가들은 3:11의 의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바울이 3:11에서 “여자들”을 말하는지, “집사들의 아내들”을 말하는지, “여성 집사들”을 말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주석가들은 다섯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읽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2:15에서 여자들에 관해 말한 다음, 장로 자격의 목록을 성별 중립적인 도입부로 시작합니다(3:1). 그래서 독자들은 첫째 목록이 남자와 여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러나 집사에 관한 목록은 곧바로 남성형 용어 “*diakonous*”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받아쓰게 하면서 자신이 남자만 염두에 두는지 여자도 염두에 두는지 보여 줄 신호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3:11에서 그 신호를 줍니다. 그는 여성 집사와 남성 집사 모두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은 이 단순한

읽기를 선호합니다. 테런 윌리엄스(Terran Williams)는 다른 해석들을 선호하는데, 그 해석들도 윌슨의 견해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³¹

더욱이 우리는 이미 윌슨이 여자에게 맞는 특성과 행동을 담은 장로 자격 목록의 일반적인 언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3:11의 의미에 대한 윌슨의 판단은 무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모든 교회에 대해 오직 남자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규칙을 세우려 했다면, 왜 그는 그것을 어디에서도 분명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집사에 관한 단락에서 장로에 관한 불확실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일을 독자들에게 맡겨 둡니까?**

일곱째: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등주의 해석자들조차 이 요구 사항들이 “감독을 남편이자 아버지로 묘사한다”(Towner)는 것과 “바울이 감독을 일관되게 남자로 지칭한다”(Wright)는 데 흔히 동의한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 장로직은 성별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 진술은 충실한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필립 타우너(Philip Towner)의 인용문은 타우너가 쓴 디모데서와 디도서 주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mias gunaikos andra*의 의미에 관한 그의 논의의 일부입니다. 윌슨(Wilson)은 타우너가 쓴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타우너는 자격 요건이 감독을 남편이자 아버지로 묘사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그가 실제로 쓴 것은 “그 규정에 깔린 가정생활의 전제가 ... 감독을 남편이자 아버지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강조는 우리가 덧붙임). 이로써 우리는 다시 ‘전제’ 논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논증에 대해 윌슨과도 타우너와도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경우든 이 논증은 헛됩니다. 전제는 자격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Tom Wright)의 주석이 지닌 의미를 윌슨이 설명하는 방식은, 우리가 보기에 훨씬 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인용문은 라이트가 『모두를 위한 바울』(Paul for Everyone) 시리즈로 쓴 묵회서신 묵상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윌슨은 라이트의 주석이 “장로직은 성별 중립적이지 않다”는 견해, 곧 장로직은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진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제시합니다. 이것은 라이트가 보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라이트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감독을 줄곧 남성으로 지칭한다. 나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히려 헬라어 문법이 보통 두 성을 함께 가리킬 때 그렇게 쓰기 때문이며, 또 교회 초기에는 대부분의 회중의 지도자가 아마 남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여성을 이 특별한 사역과 소명에서 배제한다고 보지 않는다.

1세기 헬라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주의자인 라이트는 상호보완주의자인 무(Moo)와 슈라이너(Schreiner)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자격 요건 목록에서 여성의 배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목록을 여성을 장로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윌슨의 일곱 가지 이유는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무와 슈라이너와 라이트가 옳고, 윌슨은 틀렸습니다.

참된 상호 보완성

우리는 이제 월슨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성경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은 남자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 주장이 성경 역사에 비추어 틀렸고, 성경 신학과 모순되며, 성경 주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슨의 글은 상호보완주의에 성경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실패합니다.

월슨의 입장이 실제로 하는 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아름다운 차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그 입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성경적 상호 보완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입장은 남자들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에 여성이 기여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와 자원을 빼앗깁니다. 상호보완주의자인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옳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많은 통찰과 지혜를 주셨다 ... 그리고 ... 여성들의 지혜를 활용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다.³²

그러나 월슨의 글에는 잘못된 점이 더 있습니다.

성적 차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월슨이 이해하는 성경 역사에서, 여성들은 오직 여성으로서만, 남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섬깁니다. 그는 26개쯤 되는 예를 나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해당 여성들은 특별히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들의 힘은, 여성들이 남성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온갖 일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성만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예들 가운데 많은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이끅니다. 그러나 남자도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남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 한나와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시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아삽도 그렇게 했습니다.
- 훌다와 빌립의 딸들은 예언합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도 그렇게 합니다.
- 글로에는 교회를 이끅니다. 그러나 남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 루디아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남자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많은 남자가 그렇게 합니다.
-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복음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아볼로, 실루아노(실라), 디도를 묘사할 때도 같은 헬라어 단어(*sunergos*)를 씁니다.
- 유니아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도 사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 노래를 짓는 일, 예언하는 일, 교회를 이끄는 일, 사업을 운영하는 일,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 사도로 일하는 일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처럼 성별에 따라 정해진 일이 아닙니다.

월슨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성적으로 구별된 것으로 보려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디모데전서 5:1-2를 잘못 읽고 잘못 적용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며,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ESV) 월슨은 이 권면의 문맥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직장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성별 중립적인 존재나 성별 없는 동질적인 노동자”로가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자매, 형제로 대하라고 권합니다.

여성 법조인이거나 여성 과학자라면, 그리스도인 법조인이거나 과학자가 직장에서 자신을 무엇보다 먼저 어머니나 자매로 대하고, 무엇보다 먼저 동료로, 곧 그 성별이 자신의 일에서 (기껏해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료로 대하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월슨은 창세기 1:27에서 끌어낸 자기 자신의 앞선 권면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은 성별보다 인간됨에 의해 훨씬 더 근본적으로 규정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이고, 그다음에야 남자나 여자다 ...

이 권면이 올바른 균형을 잡아 줍니다. 여성 지도자나 여성 직원은 무엇보다 먼저 지도자나 직원으로서 섬기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섬깁니다. 여성으로서 그녀는 남성과는 다른 자질과 통찰의 조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성이 주는 유익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지도력이나 일의 주된 특징은 아닙니다.³³

결론

상호보완주의 안에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다루는 은사 많은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 생각할 때면, 그것이 그들의 읽기와 사고를 흐리게 하는 안개를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³⁴

월슨은 교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맺습니다. 우리도 그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이것이 지도직을 남성에게 제한하는 일을 정당화한다고 잘못 가정합니다.

여자들[sic]이 장로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여자들이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여자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남자들이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에 더 가깝다.³⁵

우리 형제를 깊이 존중하지만, 이것은 혼란스럽고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운 까닭은, 상호 보완성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월슨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며, 남자도 여자도 상대 없이는 그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남자와 여자는 같으며(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또한 서로 다릅니다(남자와 여자로 창조됨). 같다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좋은 성품을 보여 줄 수 있고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점에서, 그들은 지도에 서로 다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셨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더 온전히 드러나기 쉽습니다. 아름다운 차이는 함께하는 지도력 안에서 드러납니다.³⁶

이것이 비성경적인 까닭은, 성경이 어디에서도 “아버지”를 교회 장로들에 대한 은유나 그들을 묘사하는 말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보는 성경의 은유는 어떤 이 땅의 목사를 가장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 은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로 그리며(요한복음 1:12-13), 예수를 만아들로, 신자들을 그분의 형제자매로 그립니다(로마서 8:29; 히브리서 1:5-6; 2:10-11).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순위 형제자매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지, 장로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섬김과 지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견해는, 여성과 남성이 완전히 서로 바꿀 수 있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다 이끌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세속적인 성 정체성 이데올로기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월슨이 글의 첫 부분에서 창조에 나타난 차이에 대해 말하는 많은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둘째 부분에서 장로직의 적격성에 절대적인 구별을 두는 쪽으로 나아간 것은, 우리가 보여 준 것처럼 잘못입니다.

아름다운 차이를 왜곡하는 상호보완주의는 계속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안개가 걷히게 합시다. 이제 그것을 뒤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

앤드루 바틀렛(Andrew Bartlett) QC, Men and Women in Christ: Fresh Light from the Biblical Texts (IVP, 2019)의 저자.

이언 폴(Ian Paul) 박사, 프리랜서 저술가, 신학자, 블로거. 영국 노팅엄 St. Nic's Church의 협동 목사(Associate Minister), 영국 셰필드 St. Hild College 객원 강사, 전 영국 노팅엄 St. John's College 학장 및 신약학 강사.

이 비평을 지지하는 사람들:

카티아 애덤스(Katia Adams), 미국 The Table Boston Church 담임 목사, *Equal: What the Bible Says about Women, Men and Authority* (David Cook, 2020)의 저자.

사이먼 벤햄(Simon Benham), 영국 Kerith 교회 담임 목사.

테런 윌리엄스(Terran Williams),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가부장제의 종말』 (Spiritual Bakery, 2022)의 저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Signal Church 목사.

주

1. 상호보완주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국에서 발전한 성경 해석 체계입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오직 남성만의 지도를 옹호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을 성경 해석에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더 넓은 사회에서 오직 남성만의 지도를 일관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역사적인 개혁주의 견해와 다릅니다.
2. Denny Burk, "평등주의로 가는 중간 기착지: Aimee Byrd의 Recovering from Biblical Manhood & Womanhood에 대한 논평", 2020년 7월 7일. <https://equip.sbts.edu/article/way-station-egalitarianism-review-essay-aimee-byrds-recovering-biblical-manhood-womanhood/> 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그는 Terran Williams, *How God Sees Women: The End of Patriarchy* (Spiritual Bakery, 2022)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풀어 설명합니다(www.terranwilliams.com 또는 Amazon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4. 출판된 그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긍정적인 서평은 여기를 보십시오: <https://www.psephizo.com/biblical-studies/does-god-discipline-those-whom-god-loves/> 그리고 그의 훌륭한 책 *God of All Things*에 관한 그와의 인터뷰는 여기를 보십시오: <https://www.psephizo.com/reviews/what-can-the-material-world-teach-us-about-god/>.
5. 2020년 11월 20일 그의 웹사이트 Think Theology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thinktheology.co.uk/blog/article/beautiful-difference-the-complementarity-of-male-and-female> 이 글은 약간 수정되어 2021년 5월 20일 Gospel Coalition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되었습니다: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beautiful-complementarity-male-female/>
6.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않으며 서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 전반부는 <https://www.psephizo.com/gender-2/beautiful-difference-the-complementarity-of-male-and-female/> 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 이 글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논의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 지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윌슨의 논의가 결혼과 남녀의 인격적 관계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장 긴 단락 (고린도전서 7장)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바울이 결혼 안의 권위와 의사 결정에 관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단락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권위를 가지며 결정은 서로 합의하여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4-5절), 상호보완주의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Andrew Bartlett, *Men and Women in Christ: Fresh Light from the Biblical Texts* (IVP, 2019), 2장을 보십시오.
8. 미리암, 드보라, 훌다에 관해,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축소하려는 상호보완주의의 시도들에 대한 답변은 *Men and Women in Christ*, 91-94쪽(5장, "Women's leadership and authority in the Old Testament" 항목)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9. 대부분의 해석자는 사도행전 18:19-21의 헬라어가 특이하고 매끄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스러운 읽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지만, 누가는 그 기원과 바울의 긴밀한 연관을 언급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Howard Marshall, *Acts* (TNTC) 1980, 301쪽; Ben Witherington, *Acts of the Apostles* 1998, 557-8쪽을 보십시오.
10. 교회의 주요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볼로를 브리스길라가 바로잡은 일에 관해서는 *Men and Women in Christ*, 207, 227쪽(11장, "The nature of the disagreement" 항목과 "3. Authoritative teaching as a special category?" 항목), 240쪽(12장, "The historical context" 항목)을 보십시오.
11. 유니아의 사도직에 관해서는 *Men and Women in Christ*, 299-306쪽(14장, "Women's prominence in the young churches" 항목)을 보십시오. 최근 상호보완주의가 등장하기까지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 유니아는 선교하는 사도로 여겨졌습니다. 아마 그녀의 두드러진 지위가 그녀가 바울과 함께 갇힌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윌슨도 자신의 글에서 유니아가 사도였다는 것을 옳게 인정합니다.

12. Bible Gateway에 있는 54개의 영어 번역본 가운데(2022년 5월 기준) 히브리어 שמר을 "지키다(guard)"로 옮긴 것은 넷뿐입니다. 그 밖에 넷은 "감시하다(watch over)"로, 하나는 "돌보다"로 옮깁니다. NIV와 ESV는 일반적인 합의를 반영합니다("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to work it and keep it").
 13. 출애굽기 18:4; 신명기 33:7, 26, 29; 시편 20:2; 33:20; 70:5; 89:19; 115:9-11; 121:1-2; 124:8; 146:5; 호세아 13:9; 이사야 30:5; 다니엘 11:34에서 'ēzer가 쓰이는 문맥을 보십시오. (이 가운데 일부는 기대했던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다룹니다.)
 14. 더 나아가 월슨은 아담이 타락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하와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창세기 2-3장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저자가 개인으로서의 "아담"과 "인류"라는 의미의 "아담"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능숙하게 활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22-24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아담만 쫓겨나지만, 실제로 뜻하는 것은 인류입니다. 고린도전서 15:22에서 바울의 논증은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이라는 개념에 근거합니다.
 15. 어쩌면 그녀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의 장래 아내로 상상하는 그런 여인일 것입니다. 잠언 31:1을 보십시오.
 16. 요한계시록 21:12-14에 관해서는 Ian Paul, Revelatio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349-350쪽을 더 보십시오.
 17. 몇 가지 예로 마태복음 19:28; 마가복음 10:30; 누가복음 20:34-35; 고린도후서 5:17; 에베소서 1:21; 디도서 2:12; 히브리서 6:5를 보십시오. 이 주제와 그 의미에 관한 짧지만 포괄적인 연구는 Ian Paul, Kingdom, Hope, and the End of the World; living in the now and not yet of eschatology (Grove Books, Cambridge, 2016)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 누가복음 22:49-51; 마태복음 5:39, 44; 베드로전서 2:21-23; 로마서 12:17-21; 디모데후서 2:25; 야고보서 5:20.
 19. 누가복음 22:38("죽하다")은 꾸짖는 말이거나, 겹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과 그곳에 머무는 일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하는 데 칼 두 자루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3:1-4는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국가 권세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20. 월슨 자신도 2022년 5월 5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든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결코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않으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살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다른 뺨도 돌려 대라고 가르치신다(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제자가 복음과 관련하여 폭력을 쓰려 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할 때마다, 그것이 무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일 때조차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꾸짖으신다(누가복음 9:22; 요한복음 19장). 사도들은 예수의 고난을 신자들이 따라야 할 본으로 거듭 제시한다(로마서 12장; 빌립보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원수나 세상의 무기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에베소서 6장).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써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이긴다 (요한계시록 12장)."
- https://thinktheology.co.uk/blog/article/how_should_christians_think_about_gun_control
21. 또한 특별한 (남성) 레위 지파 제사장직이 생긴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실패의 표지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에 빠진 뒤에야(출애굽기 32장) 생겨났고, 그 우상 숭배에 맞서 일어난 것은 레위 사람들뿐이었습니다(26-29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뜻은 그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고(출애굽기 19:6), 그 비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됩니다 (요한계시록 1:6).
 22. 베드로전서 3:7이 이 사실을 넘기지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상호 보완성의 흥미로운 예입니다. 지구력, 통증을 견디는 능력, 추위를 견디는 능력에서는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23. 고린도전서 14:26에서 예언이나 가르침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11:2-14:33에서 보듯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에 해당하는 단어는 didachē이며,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4:6에서 바울의 가르침에도, 예수와 사도들과 디모데와 장로들의 가르침에도 쓰입니다(마태복음 7:28; 사도행전 2:42; 디모데후서 4:2; 디도서 1:9). 고린도전서 14:34-35에서 여자의 말하기를 제한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 두 구절이 바울에게서 나오지 않은 덧붙임이라는 강력한 사본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 (a) 그 주장된 진정성과 일치하는, 증거에 대한 참으로 개연성 있는 설명과 (b) 그 구절들이 문맥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읽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Men and Women in Christ, 9장과 10장을 보십시오.
 24. 두 개의 목록이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1:5-9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단락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목록에 대한 우리의 개관은 Men and Women in Christ, 318-319쪽(15장, "Do Paul's requirements include or exclude women?" 항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5.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34에서 다마리(여자)는 바울이 말을 건네고(17:22) 바울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andres(남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세한 논의는 Men and Women in Christ, 319-323쪽(15장, "Do Paul's requirements include or exclude women?"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용법도 비슷합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7)는 계명이 여자에게 이웃 여자의 남편을 탐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6. Douglas Moo, 'The Interpretation of 1 Timothy 2:11-15: A Rejoinder'. (1981) TrinJ 2, 새 시리즈: 198-222, 211; Tom Schreiner, 'Philip Payne on Familiar Ground: A Review of Philip B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2010) JBMW 15, 1호: 33-46, 35.
27.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A Response to Evangelical Feminism, 56.
28. 잠언 1:8; 사도행전 16:40; 고린도전서 1:11; 골로새서 4:15; 디모데전서 5:14; 디모데후서 1:5; 3:14-15.
29. 디모데전서 2장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Men and Women in Christ, 11-13장과 부록 3-6, 그리고 How God Sees Women, 7장을 보십시오.
30. 자격 목록은 규정이라기보다 지침이므로, 디모데전서 3:3("가르치기를 잘하며")과 5:17(일부 장로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거꾸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장로가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십시오(고린도전서 14:26; 골로새서 3:16).
31. 더 자세한 내용과 해석 제안은 Men and Women in Christ, 325-326쪽(15장, "Do Paul's requirements include or exclude women?" 항목)과 How God Sees Women, 부록 5, 339-341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2.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1994), 944쪽.
33. 사회 속에서 성적 구별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할 때, 남녀 사이의 차이 대부분이 개인들 사이의 차이보다 작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가장 빠른 남자 달리기 선수는 가장 빠른 여자 달리기 선수보다 빠르지만, 여자 단거리 선수는 남자 신학자보다 빨리 달립니다.
34. 이 현상의 몇 가지 다른 예에 대해서는, 앤드루 바틀릿이 자기 책에 대한 몇몇 이상한 서평에 짧게 답한 글 'Complementarianism and a listening problem?'을 보십시오. 이 글은 2022년 3월 11일 Word from the Bird에 실렸습니다. <https://michaelfbird.substack.com/p/complementarianism-and-a-listening?s=r>. (다만 우리가 뜻하는 바를 너무 많이 읽어 내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평등주의에 대한 편파적이고 이념적인 헌신이 비슷한 결과를 낳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35. 역사적으로 보면, 남자만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신학자들은 이 제한을 교회의 지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https://www.psephizo.com/biblical-studies/the-historic-reading-of-1-tim-2/> 를 보십시오.
36. 여기서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여성과 남성이 같은 수로 지도자나 교사나 집회 강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여성이 지도적 위치에 서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https://www.psephizo.com/gender-2/should-women-be-on-platforms/> 와 그에 이어지는 글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